

도서관탐방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과 〈역곡꿈나무가족도서관〉을 중심으로

부천시 작은도서관을 다녀와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960년 경주시 변두리 농촌인 탑동에 제1호 문고가 생긴 이래 40년이 넘는 현재(2003. 12. 기준) 전국적으로 2,500여개의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공공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독서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문고 운영의 좋은 사례로 꼽히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천 지역의 공립문고들 중 2곳을 찾아가 보았다. ■ 편집자 주

85만 인구의 부천시(시장 홍건표)에는 4개의 공공도서관(부천시립중앙도서관, 부천시립심곡분관, 부천시립북부분관, 부천시립꿈빛분관)과 (재)부천문화재단이 설립한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그리고 40여개의 문고가 있다.

이 중 〈복사꽃필무렵도서관〉 〈햇살이가득한도서관〉 〈새싹도서관〉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 〈아름드리도서관〉 〈행복한도서관〉 〈사랑나무가족도서관〉 〈꿈나무가족도서관〉 〈도란도란어린이도서관〉이라는 각각의 정감 있는 도서관 명칭을 가지고 있는 9개의 공립문고는 ‘부천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라는 모임을 조직하여 부천시에 생활권역별로 작은도서관(=문고)을 만들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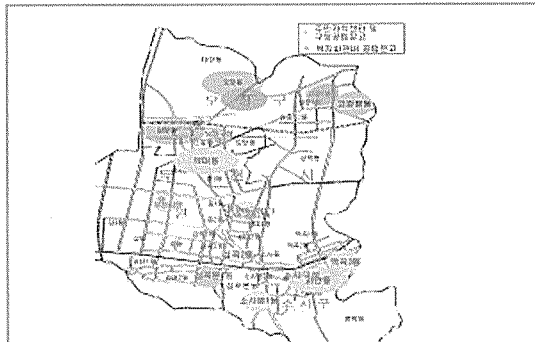
9개 작은도서관의 설립 논의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0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던 부천시는 그 해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를 만들고, 총 35개의 의제 중 23번째인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도서관 만들기’를 추진할 ‘작은도서관분과’를 조직하였다.

작은도서관분과에는 부천시립도서관, 시의원, 사립문고, 공립문고, 어린이도서관, 사회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였으며 사업 목표를 ‘동네마다 하나씩 작은도서관만들기’와 ‘도서관 네트워크’에 두고 2001년 7월 ‘부천지역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도서관운동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 부천시 작은도서관 운동이 좋은 사례로 꼽히는 이유이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시립도서관, 사립문고, 공립문고가 함께 참여하여 초창기부터 부천지역 전체 도서관운동의 사업방향을 계획하며 도서관과 문고가 그리고 공립과 사립이 별개로 움직이지 않고 범 지역적인 도서관네트워크를 결성에 함께 노력했다는 점이다. 도서관탐방팀이 이번에 찾아가간 〈약대신나는가족도서관〉(이하 ‘약대’)과 〈역곡꿈나무가족도서관〉(이하 ‘역곡’)은 모두 이상의 부천시 작은도서관 운동 추진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2002년 12월 24일과 2003년 2월 27일 각각 개관하였다.

부천시 공립문고의 경우 대부분이 복지관 또는 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약대’는 새롭고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부천시공립문고 현황〉

회에서, '역곡'은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지부 부천시역사회교육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다.

문고명	약대	역곡
주 소	원미구 약대동 123번지 약대 주민자치센터 3층	소사구 과안동 108-1 번지 역곡 3동 주민자치센터 4층
전화번호	032) 682-5800	032) 345-5919
팩스번호	032) 682-4800	032) 614-8365
면 적	105.2 m ²	209.46 m ²
열람석	20석	60석
직 원 수	사서직 1명	사서직 1명
자 료	도서 4,500책	도서 4,600책
대 출	1인 2책 7일	
운영시간	월-금 09:30-18:30 토 10:00-14:00	월-금 10:00-19:00 토 10:00-16:00
휴 관 일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연간 운영예산은 3-4천만원 정도로 인건비와 도서구입비(한달에 약 100책 구입)는 9개 작은 도서관 모두 같으며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사서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 1일 이용자수는 100여명 정도로 주말과 방학,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들이 많다고 한다.

기관평이나 운영시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천시 작은도서관들은 각각의 마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일반 공공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작은도서관이야말로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보다 잘 엮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능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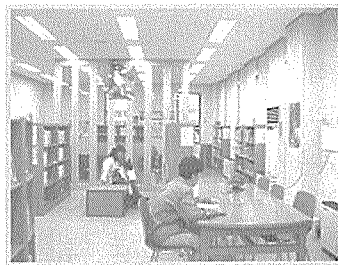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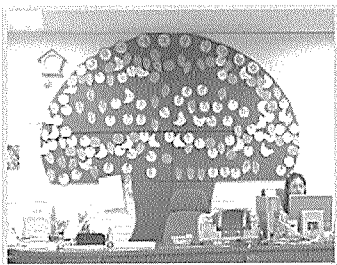


〈작은도서관의 경우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유휴 공공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다. '약대'와 '역곡' 모두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내)에 위치하고 있다. 왼쪽=약대, 아래쪽=역곡〉



행할 수 있는 곳이며, 주민들의 요구와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작은도서관분과는 활동을 접고 부천시작은도서관협의회가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으며, 11월에는 부천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을 찾아 나서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부천시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작은공공도서관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힘찬 발걸음에 도서관계 모두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

[글: 박경아 기획·홍보팀장, 사진: 심호정]



〈위치 알리기, 상호대차 서비스의 확대, 도서관간 상호 검색이 가능한 운영프로그램 구축, 인력 보강, 자료구입비 확보, 홈페이지 구축 등 각 중 과제를 해결하고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